

## 용을 표현한 미술작품

전인지, 202-2·3호 서화Ⅱ실 18:00~18:30

### 1. 용의 의미와 상징성

용은 대표적인 상상의 동물로 고대 이집트·바빌로니아·인도·중국 등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 전부터 상상 속에 존재했던 동물로서 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영원히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무덤 네 벽에 동서남북 방위를 다스리는 사신을 그렸습니다. 고구려 강서대묘에 묘사된 사신도四神圖에서 동쪽에 배치된 청룡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림 1. 강서대묘 청룡모사도 k-82  
1층 선사 고대관 전시

용은 또한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신앙되어왔습니다. 부여 능산리 출토 금동대향로의 아랫부분에 용이 배치되었는데, 용의 위로 결합된 향로 하단에는 각종 수생생물 또한 조각되어 있어 물의 세계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림 2.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그림 2-1. 하단의 받침부분의 용

한편 조선시대에는 목재 건물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 상징하는 수성水性을 활용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1997년, 경희루 연못 증설 시 연못 속에서 발견된 청동제 용입니다.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의하면, 이 청동용은 1865



그림 3. 경복궁 경희루 연못 속 청동용,  
경복 26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년 1쌍을 제작하여 화재로부터 궁궐을 보호해 달라는 기원을 담아 1867년 연못에 가라앉혔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한 쌍 중 한 마리의 용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나 목재 건물은 특히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를 막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경희루 못 속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 4. 태조어진(복제품), 1층 조선실 전시

조선 시대에 있어 용은 왕을 상징하였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용은 왕을 상징해 왕의 얼굴을 용안龍顔이라 하고 왕의 의복과 의자 등은 항상 용으로 꾸몄습니다. 태조 어진 곳곳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표현된 왕의 상징을 찾아보는 것도 작품 맛보기에 재미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용의 상징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미술작품 속 용의 모습

용의 이미지는 여러 동물의 부분을 조합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림으로 표현된 용의 모습을 보면 이미 존재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두루 모아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용은 커다란 구름무리 속에 둘러싸여 몸이 다 보이지 않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서 운무와 함께 묘사되는 일이 많습니다.

중국의 문헌인 『광아廣雅』익조翼條에 용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놓았습니



그림 5. 필자미상, 용과 호랑이 그림, 비단에 색, 덕수2300 중 1점 2층 서화실 전시 중



다. “머리[頭]는 낙타[駝]와 비슷하고, 뿔[角]은 사슴[鹿], 눈[眼]은 토끼[兎], 귀[耳]는 소[牛], 목덜미[項]는 뱀[蛇], 배[腹]는 큰 조개[蜃], 비늘[鱗]은 잉어[鯉], 발톱[爪]은 매[鷹], 주먹[掌]은 호랑이[虎]와 비슷하다…”

용에 관련된 옛 이야기 중에 용의 아홉 아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치제 때 어떤 사람이 '용이 새끼 아홉을 낳았는데, 용은 되지 않고 각기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또한 아들들의 이름과 속성에 대하여 쓰고 있는데 첫째 비희鼉는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길 좋아하여 비석의 받침에 쓰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비석들을 보면 거북이 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비희입니다.



그림 6. 첫째 비희  
월광사원랑선사탑비(한국, 890년)  
현재는 전시하고 있지 않음



그림 7. 셋째 포뢰  
「청녕 4년」 명 동종(한국, 1058년)  
→ 고려II실(116호)



그림 8. 아홉째 초도  
김승얼굴모양 문고리(한국, 8-9세기)  
→ 통일신라실(111호)

그림 7의 셋째 포뢰蒲牢는 상은 용과 비슷하나 조금 작고 천성이 울기를 좋아합니다. 고래를 무서워하여 고래를 보기만 하면 울부짖는데, 그 소리가 무척 크고 웅장해서 사람들이 종이나 북 위에 포뢰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막내이자 아홉째인 초도椒圖의 형상은 조개 혹은 개구리와 닮았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걸어 닫는 것을 좋아하며, 닫는 걸 좋아하는 것 때문인지 문고리에 많이 장식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종의 설화이기에 모든 미술작품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림 6,7,8의 경우는 전시실에서 찾아보며 용을 주제로 한 미술작품은 무엇이 있는지 더 찾아보는 재미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75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2월 27일)

## 글과 그림의 힘을 알았던 왕, 영조 특별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

명세라,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영조는 연잉군 시절부터 서화에 재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장에 “무릇 글씨와 그림 따위는 다 배우지 않고도 잘하시어 붓과 먹을 가지고 노실 때마다 빼어난 풍채가 사람들의 눈을 감동시켰다”고 적고 있습니다. 숙종도 이런 영조의 재능을 인정해 “평소에 그림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림이 절로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세제로 책봉된 뒤 자신의 서화 재능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을 쓰고, 자신이 세운 업적과 선왕을 본받는 장면, 군신 간의 일을 담은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담은 글을 쓰고 그림을 주문한 영조, 그는 글과 그림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영조는 글과 그림으로 탕평 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세자와 신하들에게 회사후소繪事後素, 즉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한 뒤의 일”이라며 기본을 중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은 논어에서 나오는 것으로 외면보다는 내면을 충실히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조는 “글은 글씨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길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영조의 신념은 정치적인 부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붕당의 이익 때문에 다투거나 지엽적인 일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영조의 생각은 김두량金斗樑(1696-1763)이 그린 <삼살개>에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왜 탕평을 원했던 것일까요? 바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균역均役’과 ‘준천濬川’ 등 백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함께 할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탕평책을 바탕으로 이룩한 자신의 업적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준천첩》이 그 예입니다(그림1).

‘준천’은 물이 흐르는 개천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청계천은 정비한 지 오래되어 물길에 막히고 넘쳐 백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영조는 개천의 흙을 걷어내 물을 통하게 하고, 무너진 다리 등을 복원하였습니다. 영조는 직접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천이 완료되고, 이를 그림으로 남기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그림으로 남긴 최초의 왕인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도 그의 업적을 알 수 있도록 한 영조는 진정 글과 그림의 힘을 알았던 왕입니다.



그림1. 김희성金喜誠(?-1763 이후), <왕이 준천 공사를 보다東門上觀圖>, 《준천첩 濬川帖》, 1760년, 비단에 색, 27.0×38.8cm, 국립중앙박물관 전희3572



제75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2월 27일)

##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처음 만나는 남인도의 신들

류승진, 기획전시실 19:00~19:30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는 남인도의 생명력 넘치는 신들과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스투파는 불교에서 부처나 훌륭한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탑塔’을 뜻하는 옛말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의 절반 이상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 남인도 데칸고원 동남쪽에 세워진 스투파를 장식하던 조각입니다. 전시실에는 이러한 스투파 조각들이 숲을 이루듯 서 있으니, 2천 년 전 스투파의 숲을 여행하듯 전시실 안을 거닐며 남인도 미술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번 스투파의 숲 여행을 안내해 줄 사람은, 기원 전후에 데칸고원 동남쪽을 다스리던 사타바하나 왕조의 왕입니다. 전시실 앞에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하는 이 조각은 원래 크리슈나강 근처의 유명한 불교 사원



사타바하나의 왕과 그의 시종들, 1세기 후반, 안드라프라데시 아마라바티, 영국박물관 소장

유적, 아마라바티 스투파를 둘러 장식하던 것입니다. 그는 산개傘蓋를 쓰고 스투파 율타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빈 대좌 위에 머리 숙여 절하는 사슴 두 마리가 보이니, 아마 석가모니가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던 장면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그는 불교신도일 것 같지만, 사실 사타바하나의 왕은 힌두교도였습니다. 유명한 스투파 유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왕이 위화감 없이 새겨져 있는 풍경은 마치 남인도 고유의 종교와 풍습에 불교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남인도에 불교가 들어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던 과정을 사타바하나 왕의 안내로 따라가 보시죠.

제75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2월 27일)

## 인장: 아이덴티티의 날인

양희정, 306호 메소포타미아실 19:00~19:30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예술과 물질문화에서 정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장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주인이 도안과 명문을 선택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고 드러냈습니다. 실감개 모양을 한 원통형 인장에는 다양한 도안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 축축한 점토판에 인장을 굴리면 도안이 반전된 모습으로 찍혀 나옵니다. 원통형 인장은 쉼기문자가 발명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등장했으며, 아람 문자를 쓴 파피루스에 점토 도장을 찍는 것이 보편화되는 기원전 제1천년기 말까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통형 인장은 문서를 인증하려는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아주 사적인 물건이기도 해서 종종 장신구처럼 착용하거나 몸에 부적으로 지녔습니다. 원통형 인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지 않는 보석이나 준보석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원거리 무역망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원통형 인장은 작고 휴대하기 좋아서 고대 근동 전역에 도상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림1. 채무변제증서 보관함  
기원전 20~19세기  
아나톨리아 쿨테페  
출토 추정, 점토,  
3.7×4.5×1.4cm



1) 신 앞의 두 영웅



3) 신 앞의 인간과 신



2) 신을 알현하는 남자



4) 신에게 경배자를 이끄는 중재의 여신